

김마리아[金瑪利亞]

3·1 운동에 앞장선 여성 독립운동가

1891년(고종 28) ~ 1944년



1 개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을 박차고 나온 신여성들이 나타났다. 김마리아(金瑪利亞)는 이러한 신여성 가운데에서도 단연 선두 주자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김마리아는 일찍이 근대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여 선진 학문을 받아들였으며 전문직까지 진출하였다. 관련사료 하지만 일제 식민통치와 이에 맞서는 독립운동이라는 시대적 물결에서는 신여성 김마리아도 예외일 수 없었다.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삶도 선구적이었다.

2 기독교가 처음 뿌리내린 솔내에서 태어나다

김마리아는 1891년 6월 18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일명 솔내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마을은 한국에서 기독교가 처음 뿌리를 내린 곳으로 유명하다. 그의 아버지인 김윤방(金允邦)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서상륜(徐相崙)으로부터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으며 이후 이곳을 방문한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가재를 기부하여 마을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솔내교회이다. 마리아란 이름도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것이었다.

김마리아의 집안은 한국 기독교의 전파에 있어서 선구적인 가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독립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사망하였지만 그의 숙부인 김필순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그는 안창호와 결의형제한 사이였으며 서울에 거주할 때 그의 집에는 노백린, 유동열, 최광옥, 이동휘, 이갑, 신규식 등 쟁쟁한 인사들이 드나들었다. 그의 고모들도 만만치 않아서 그의 큰 고모부는 신한청년당을 만든 핵심인물인 서병호였으며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한 김규식은 세 번째 고모부였다. 셋째 고모인 김순애는 남편뿐 아니라 본인도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였다.

3 첫 번째 여학생이 되다

김마리아는 어려서 아버지가 세운 솔내소학교에 입학하여 4년 만에 졸업하였다. 그는 1905년에 서울에 올라와 당시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숙부 김필순의 집에 기거하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처음에는 이화학당에 입학하였다가 교파 문제로 정신여학교로 옮겼다. 당시 정신여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생으로는 유각경과 방신영 등을 들 수 있다.

김마리아는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光州)로 내려가 큰 언니인 김함라가 근무하고 있던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13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듬해인 1914년 정신여학교의 루이스 교장의 추천과 재정지원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히로시마의 긴조여학원(錦城女學院)에서 1년간 일본어와 영어를 공부한 후 고모인 김필례가 유학가 있던 기독교 계통의 도쿄여자학원에 입학하였다.

4 도쿄유학생의 신분으로 3·1운동에 참가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도쿄유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2·8독립선언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2·8독립선언을 준비하던 송계백과 백관수가 김마리아를 찾아와 여학생들도 운동 준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김마리아는 이러한 권유에 따라 여자 유학생들에게서 성금을 거두어 준비 자금에 보태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는 2·8독립선언 당일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대회에도 참석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2·8독립선언서를 10장 베껴서 몸에 숨긴 채 동료인 차경신과 함께 현해탄을 건너 부산으로 들어왔다. 이때 마침 중국 상해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던 큰 고모부 서병호와 셋째 고모인 김순애를 부산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서병호와 김순애는 신한청년당의 방침에 따라 국내의 독립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입국한 것

이었다. 김순애는 김규식과 결혼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부로서 신랑 김규식은 파리강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출발한 상태였다.

김마리아는 먼저 대구에 가서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2.8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했으며 큰언니 김합라와 막내 고모 김필례가 살고 있는 광주에 도착하여 선언문을 복사하여 수피아여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이화학당과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황해도 봉산과 신천 등지를 돌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김마리아는 서울에서 3·1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하여 정신여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학생들의 가두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일본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관련사료 그는 이때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토록 고생을 해야만 하였다. 그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8월 5일에 석방되었다.

5 독립운동을 위해 애국부인회를 조직하다

김마리아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3·1운동 당시 정신여학교 동창들이 혈성부인회를 조직하여 옥바라지와 가족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기독교 계통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 후원활동을 벌이는 등 여러 여성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김마리아는 출감 이후 이러한 여러 여성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결성한 것이다.

하지만 김마리아는 한 회원의 배신으로 1919년 11월 28일 52명의 회원들과 함께 체포되어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 경찰국으로 압송되었다. 관련사료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고문 후유증이 심해 병보석으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석방 후 서울로 올라와 세브란스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동지들의 도움으로 1921년 7월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6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김마리아는 중국에 도착한 후 상해에 있는 서병호의 집에서 큰 고모인 김구례와 셋째 고모인 김순애의 보살핌을 받으며 고문 후유증을 치료하였다.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남경에 소재한 금릉대학에 입학하여 못다 한 학업을 계속하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임시정부의 의정원에서 황해도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상해에서도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출범한 후 이러저러한 일로 분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에 걸쳐서 이른바 국민대표대회가 열렸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놓고 현행 임시정부를 개혁하자는 입장(개조파)과 아예 백지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창조파)으로 나뉘어졌다.

김마리아는 대한애국부인회 대표 자격으로 국민대표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개조파의 입장에서 각종 개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다. 하지만 국민대표대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긴 채 끝나고 말았다. 김마리아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갈등에 지친 김마리아는 그 돌파구로 미국 유학의 길을 선택했다. [관련사료](#)

7 다시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다

김마리아는 19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후 안창호의 부인 이혜련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 야채판매점 점원을 비롯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김마리아는 1924년 9월 미조리주 파크빌에 소재한 파크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2년간 공부하였다. 1928년에는 시카고로 옮겨가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이듬해인 1929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30년에는 다시 뉴욕으로 옮겨가 뉴욕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뉴욕에서는 뜻하지 않게 옛 동지인 황애덕과 박인덕 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들 옛 동지들과 함께 근화회(재미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그가 회장을 맡고 황애덕이 총무를 맡았으며 이선행이 서기를 맡았다. 근화회는 조국 광복의 대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미 한인사회의 운동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8 귀국하여 원산에서 신학을 가르치다

김마리아는 1933년 오랜 망명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였다. 그가 귀국을 결정한 데에는 원산의 마르타윌슨 신학교의 루이시 교장의 권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캐나다에서 열린 수양회에서 루이시 교장을 만났다. 루이시 교장은 과거 김마리아의 부친이 사망한 약혼자의 장례식을 치러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김마리아에게 귀국하기 위한 여비를 대주면서까지 귀국할 것을 권유하였다.

김마리아는 이러한 권유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일제 당국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가 원산의 신학교에만 머물면서 신학만을 가르친다는 조건으로 귀국을 허락하였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원산으로 내려가 신학교에 부임하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강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

취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43년 고문후유증이 재발하여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44년 3월 13일에 운명하고 말았다.